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f Developing Model on Family System Related to Adolescent Adjustment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전 귀 연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 Jeon, Gwee-Ye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ve influence of OCM and BSM's family functioning dimensions and develop a new family system model related to adolescent adjustment. The 443 subjects were selected randomly from the second grade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city of Taegu. The survey instruments were FACES III, SFI-I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Depression Scale, Self-Esteem Scale, and Delinquency Scale.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Multiple Regression, MANOVA, Scheffé test were conducted for the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CM's and BSM's family functioning dimensions respectively had different relative influence that affected adolescent adjustment level. In anxiety and depression, BSM's family health/competence dimension had superior influence to any other family functioning dimensions and in self-esteem and delinquency, OCM's cohesion dimension was superior to any other family functions.

Second, family system classification method by a new family system model using family cohesion(OCM's relationship dimension) and family health/competence(BSM's change dimension) was more useful than OCM and BSM in evaluating adolescent adjustment.

* 본 논문은 94년도 경북대학교 공도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I. 서론

지난 20년간 가족이론과 가족치료 문헌에서 가족 기능에 대한 몇가지의 모델이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모델들은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된 차원 뿐 아니라 건전한 기능과 관련이 있는 적절한 차원을 개념화한다. 그 중 1980년대에 가족치료 문헌에서 우세하게 중요한 두개의 모델이 제시되었다. 가족기능에 관한 Beavers의 Systems Model(BSM)과 Olson의 Circumplex Model(OCM)이다. 이 두 모델은 가족기능에 관한 중요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분류하기 위한 유형론을 제공한다.

각각의 모델은 가족기능에 관한 두가지 중요한 요인을 확인했는데 하나는 관계요인(relationship factor)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 혹은 적응성요인(change 또는 adaptability factor)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모델은 유사개념을 이용한 동등 모델로 보여졌다(Beavers & Voeller, 1983;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그러나 두 모델간의 관련성에 대한 최근의 경험적인 탐색연구는 이 두개의 모델이 가족기능의 다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Green, Kolevzon, & Vosler, 1985; Hampson, Beavers, & Hulgus, 1988).

Green 등은 모델을 평가하는 단계는 모델이 같은 가족생활의 차원을 평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어느 모델이 가족생활의 건강정도를 판단하는 데 보다 민감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가족체계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OCM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연구는 일부되어 왔으나 BSM에 대한 연구는 전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OCM에 대한 연구들은 한결같이 OCM이 국내 가족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OCM과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는 BSM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OCM과 BSM에 의한 가족체계기능차원이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중 설명력이 우세한 가족기능차원을 활용하여 청

소년의 적응정도를 보다 더 잘 예견할 수 있는 가족체계모델을 개발하며, 기존의 OCM과 BSM과의 비교를 통해 그 유용성을 진단해보고 이것을 기초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가족체계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OCM의 가족기능차원과 BSM의 가족기능차원이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OCM과 BSM에서 우세한 가족기능차원을 활용하여 개발된 가족체계모델은 OCM 과 BSM보다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판단하는데 유용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Olson의 Circumplex Model

가족기능에 관한 Olson의 Circumplex Model(OCM)은 Olson과 그의 동료들이 연구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기능에 관련된 문헌에서 제시된 50가지 이상의 개념들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귀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Olson 등(1979, 1983)은 군집분석기법을 써서 가족기능을 묘사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양방향성의 두개의 요인-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 단방향성의 세번째 요인-가족의사소통-을 결정했다. 이 중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차원은 가족과정 또는 가족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여겨 상호조화를 이루는 유형론적 모델 즉 Circumplex Model을 발전시켰다. 의사소통은 모델에 직접 도식화되지 않고 다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Olson 등이 결정한 두개의 중요한 양방향성 요인들 중의 첫번째는 관계요인으로 가족응집성이라 한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된다(Olson 등, 1983). 이 요인은 외부세계에 대한 가족경계선의 침투성은 물론 가족 내부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평가한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정서적 유대는 개인이나 가족이 제

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에서 양방향성이다.

Olson 등이 규정한 두번째 중요한 양방향성 요인은 변화와 유연성 요인으로 가족적응성이라 부른다. 이것은 “상황적 혹은 발달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 되며(Olson 등, 1983) 권력, 협상양식, 관계에 있어서의 규칙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건전하지 못하므로 또한 양방향성이라 묘사된다.

세번째 요인은 ‘가족의사소통’이다. Olson 등(1983)은 훌륭한 의사소통은 역기능적 수준에서 기능적 수준이 되도록 돕는 촉매역할을 하기 때문에 촉매차원(facilitating dimens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의사소통 행동은 가족 개개인의 바램이나, 감정 등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 결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이 변하게 된다.

Olson 등(1979, 1983)은 가족체계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세가지 요인 중 응집성과 적응성을 사용했다. 적교적이고 양방향성의 두 요인을 기초로 하여 16개 유형의 가족체계를 분류하고 최근에 이것을 3차원으로 도식화 했다(Olson, 1993).

그러나 가족체계연구시에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16개 유형으로 자세히 분류하여 논하기 어려우므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점수에 따라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균형가족의 3종류의 가족체계로 나누어 체계유형을 연구하거나(Olson, 1985, Lavee & Olson, 1991), FACESⅢ의 점수에 따라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가족의 4종류로 가족체계를 나누어 연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en, & Wilson, 1992).

Olson의 Circumplex Model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까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과는 달리, 가족의 특성과 가족의 기능간의 관계를 양방향성, 즉 곡선적(curvilinear)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FACESⅢ을 이용하여 연구를 할 때에는 가족기능차원과 가족특성간의 관계는 직선적 관계를 가정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전제로 새로운 분류방법을 제시하였으며(Lavee & Olson, 1991) 일반가족을 대상으로한 국내의 실증적 연구에서도 가족기능차원과 가족원 및 가족의 특성이 직선적인 관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연·김득성, 1993; 최규련, 1994; 전귀연·최보가, 1995a, 1995b; 김정옥, 1995).

2. Beavers의 Systems Model

Beavers의 Systems Model(BSM)은 Beavers와 그의 동료가 일반체계이론을 가족생활에 임상적 연구적용을 하여 연역적으로 개발되었다. 초기에 이 모델은 청소년의 정신분열증과 그들 가족원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Beavers, Blumberg, Timken, & Weiner, 1965). 연구를 거듭하면서 건강하고 잘 적응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 뿐 아니라 정신분열적이고 신경성적 문제행동을 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연구했다(Lewis, Beavers, Gossett, & Phillips, 1976; Beavers, 1977; Kelsey-Smith & Beavers, 1981; Beavers, 1981).

BSM은 Bertalanffy(1968)의 일반 체계이론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가족은 물론 개인을 포함하는 모든 생활체계는 혼란스러운 역기능적 체계에서 엄격한 통제지향적 체계로, 보다 더 나아가 자율적이고 융통성있고 적응적인 체계 즉, 역량이 있는 체계로 나아가간다”는 가정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BSM의 주요한 차원은, ‘가족 역량(family competence)’에 대한 개념으로 가족의 구조, 유연성 및 역량을 다루고 있다. Beavers(1977)는 이 차원이 직선적이고 무한하다고 가정했다.

Beavers와 Voeller(1983)는 “가족이 보다 융통성있고 적응적일수록 보다 더 조정가능하고 위기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며 기능적으로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역량이 있는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분화(differentiation)를 더욱 격려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가족체계의 능력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그러므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적응력(즉, 변화)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가정한 Olson의 Circumplex Model과 대조적으로 Beavers는 가족적응성의 무한한 연속

체를 가정했다.

BSM의 두번째 차원은 Beavers(1977)가 가족 양식(family style)이라 명명한 관계적 차원이다. 이 차원은 외부세계와 관련해서 가족이 가지는 패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그것은 Erikson(1963)에 의해 개발되어 Stierlin(1972)이 가족 청소년을 다룬 연구에서 활용한 구심성 가족상호작용과 원심성 가족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이다. 구심성 가족은 외부세계보다는 가족내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얻는 반면, 원심성의 가족은 가족내부에서 보다 외부세계에서 더 많은 만족감을 얻는다. Beavers(Beavers, 1977; Beavers & Voeller, 1983)에 따르면 건강한 가족은 극단적으로 원심적이거나 구심적이지 않은 형태 즉, 균형적인 가족양식을 가진다.

직선적이고 수평적 차원으로 가족역량요인을, 곡선적이고 수직적인 차원으로 가족양식의 요인을 활용하여 BSM은 아홉가지 가족유형의 가족체계를 도식화했다. Beavers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가족유형을 임상적으로 규정하여 표현했다(Beavers, 1977, 1981; Lewis 등, 1976; Beavers & Voeller, 1983). 부모나 자녀들의 개인적 기능에 대한 언급없이 현존의 가족체계를 묘사한 Olson과는 달리 Beavers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 기능을 묘사했다. 9가지 가족유형은 가족기능 및 역기능의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 가족체계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첫번째 유형은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y)”으로, ‘최적의 가족(optimal family)’과 ‘적절한 가족(adequate family)’ 유형이 이에 속한다. 건강한 가족은 최적으로 혹은 적절하게 기능하며 가족구성원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의 겪지 않는다.

두번째 유형은 “중간범위가족(midrange family)”으로 가족 역량차원에서는 중간수준에 속하는 가족으로, 가족양식의 수준에 따라 ‘중간범위의 구심성가족(midrange centripetal family)’, ‘중간범위의 원심성가족(midrange centrifugal family)’ 및 ‘중간범위의 혼합가족(midrange mixed family)’의 세유형이 이에 속한다. 이 유형의 자녀는 가벼운 행동장애와 신경증적인 증세를 보인다.

세번째 유형은 “경계선상의 가족(borderline family)”으로 가족양식 수준에 따라 ‘경계선상의 구심성가족(borderline centripetal family)’과 ‘경계선상의 원심성가족(borderline centrifugal family)’으로 나누어진다. 경계선상의 가족은 가족내에서 안정되고 통제지향적인 상호작용을 확립하는데 중간범위의 가족들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보다 더 혼란스럽고, 지배/복종의 패턴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가족구성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의식이나 통찰이 거의 없으며 이유형의 자녀는 불안정한 성격혼란을 겪거나 강박관념이나 식욕부진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유형은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severely disturbed family)”으로 가족역량 차원에서 가장 낮다. 가족양식 수준에 따라 ‘심하게 혼란스러운 구심성가족(severely disturbed centripetal family)’과 ‘심하게 혼란스러운 원심성가족(severely disturbed centrifugal family)’이 이 유형에 속한다.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은 분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눈에 띄게 부족한 특징을 가진다. 가족구성원은 주의깊은 관심을 공유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갈등해결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어떤 가족구성원도 명백한 권력을 내보이지 않으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은밀하고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독특한 서리두기’가 발생한다. 이것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만남이 배제되며 자녀들은 가끔 정신분열증이나 반사회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한다.

3. Olson의 Circumplex Model과 Beavers의 Systems Model의 비교

OCM과 BSM은 모두 가족기능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임상적 실제 사이를 관련시키고자 시도한 것이다. 두 모델 모두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cross-sectional, macro-assessment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가족기능의 중요한 요인을 확인하고, 가족을 분류하려는 유형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Green, Kolevzon과 Vosler(1985)가 확인한 주된 차이점의 하나는 OCM은 지난 반세기동안 가족치료문

현에서 나온 다양한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귀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OCM은 보다 강한 경험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반면에 BSM은 가족들을 임상관찰해서 연역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보다 더 강한 현상학적이고 임상적인 기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두 Model 모두 건강과 병리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두개의 중요한 가족 기능의 차원을 확인했다. 첫번째 차원은 관계 차원인데 이것은 OCM에서 가족응집력으로 그리고 BSM에서는 가족양식으로 제시되었다. 두번째 차원은 변화차원인데 그것은 OCM에서는 가족적응성으로, BSM에서는 가족건강/역량으로 제시되었다.

이런 차원들 중, 한가지에 대해서는 개념상의 일치를 보였다. Olson 등(1983)과 Beavers(1977) 모두는 관계차원이 곡선적이거나 양방향성(curvilinear or bidirectional)이라고 가정했다. Green 등(1985)과 Hampson 등(1988)의 연구는 관계차원상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가족들은 가족체계와 구성원내에 손상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가설에 대한 경험상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두번째 차원, 즉 변화의 차원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Olson에 따르면 건강한 가족은 형태안정성(morphostatic: 낮은 적응성)과 형태발생성(morphogenic: 높은 적응성)이 잘 균형잡혀있는 가족이므로 안정성과 변화가 알맞게 이루어져 있는 가족이다.

OCM에서 가족적응성은 가족체계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OCM에서 응집성처럼, 적응성은 곡선적이라고 가정된다. 너무 많은 변화(혼란)나 너무 적은 변화(엄격성)는 역기능과 관련된다. 대조적으로 Beavers는 적응성을 효과적인 가족 기능과 직선적인 관계로 본다. BSM은 적응성을 역량과 관련짓고 그것을 연속체상에 두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낮다고 했다.

Lee(1988)는 OCM의 적응성이 직선상의 변수인가 곡선상의 변수인가에 관한 애매모호성은 FACES의 초기척도에 대한 불일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Lee는 FACES와 FACES II 모두는 적응성 척도

내에 직선적이면서도 곡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Lee에 의해 확인된 또 다른 혼란되는 요인은 FACES II 내에 적응성과 응집성요인 사이의 상호관계($r=.68$)에 대한 문제이다. FACES III는 개량된 척도로 보는데 그 이유는 적응성 요인과 응집성 요인이 직교하기 때문이다(Joanning,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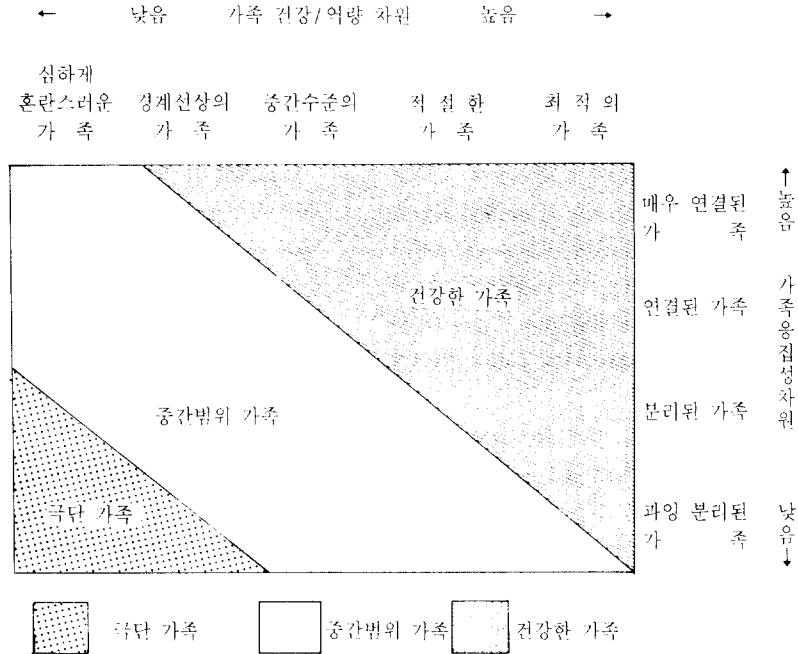
Lee(1988)는 두 Model사이의 변화차원에 대한 혼란은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능력과 구조의 특징으로서의 변화 사이의 구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제안했다. Lee에 따르면 Olson의 적응성은 구조의 특징으로서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즉 현재 진행중인 가족 구조내에 본래 존재하는 변화의 정도이다. Beavers의 적응성은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능력이다.

Lee는 OCM과 BSM의 변화요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first-order 변화와 second-order 변화에 대한 Bateson의 구성개념을 이용했다. Lee는 OCM이 first-order 변화를 다룬다고 주장했는데 즉, 체계변수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BSM은 second-order 변화를 다루는데 변수 그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Lee(1988)에 따르면 first-order 변화는 가족 건강과 곡선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과도한 first-order 변화는 체제혼란을 일으킨다. 반면에 소량의 first-order 변화는 엄격함을 낳는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first-order 변화는 가족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적응성이 곡선적으로 가족건강과 관련된다는 OCM의 가정과 일치된다.

대조적으로 Lee(1988)와 Hoffman(1981)에 따르면, second-order 변화 즉, 가족의 구조체계를 변화시키려는 능력은 BSM의 가족건강/역량의 적응성 차원처럼, 적응적인 가족기능과 직선적으로 관련된다. OCM의 의사소통에 대한 촉진 차원은 BSM의 가족건강/역량과 보다 유사한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가족구조내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가족건강과 직선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Olson, 1986).

Green 등(1985)과 Hampson 등(1988)은 OCM과 BSM간의 경험적 관계를 연구했다. Green 등은 OCM에서는 자기 보고척도 FACES를 이용했고, BSM에서는 자기보고척도 SFI 뿐만 아니라 BTFES의 관찰

〈그림 1〉 연구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가족체계 모델



적도를 사용하여 가족건강/역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Green 등은 OCM차원에서 균형가족이 BSM의 가족건강/역량상에서 또한 높은 점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가설을 시험했다.

Model에 대한 이 비교의 결과는 애매모호하다. 적응집성차원에서 균형잡힌 가족들은 외부인(즉, 임상가)에 의해 측정된 BTFES 가족건강/역량평가상에서 그리고 내부인(즉, 가족 구성원)에 의해 측정된 SFI 가족건강/역량상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는 가설에 대한 지지는 있다. 그러나 OCM의 적응성에서 균형잡힌 가족이라고 추정된 가족이 BSM의 가족 역량상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는 가설에는 지지된 바가 없다. FACES적응성 점수와 관찰된 방법(BTFES상의 가족건강/역량 점수)과 자기보고적 방법(SFI 가족건강/역량상의 점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Green 등(1985)으로 하여금 모델들이 가족생활의 서로 다른 특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추측하게끔 했다. 그러나

Green등은 또한 적절한 적응수준이 최적의 가족기능과 관련된다는 OCM의 전제가 잘못된 가정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Olson의 Circumplex Model(Olson et al., 1983)과 Beavers의 Systems Model(Beavers & Voeller, 1983)의 초기 비교는 두 모델이 가족 기능의 유사구조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더 많은 경험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보다 최근의 비교들(Beavers & Voeller, 1985; Green et al., 1985; Hampson et al., 1988; Lee, 1988)은 두 모델이 가족 기능의 관계자원을 개념화하는 데는 동등하지만 가족 적응성의 개념화에는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개괄해보면,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OCM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들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최적의 가족기능과 곡선적 관계가 아니라 직선적이라는 보고가 있고, 가족적응성 차원에 대해서는 곡선적 관계를 전제로 한 접근에

대한 반론도 BSM에서 이미 제기되었다(Beavers & Voeller, 1983; Miller, Epstein, Bishop, & Keitner, 1985; Smith, 1985).

국내의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기능적인 가족관계와 직선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수연·김득성, 1993; 전귀연·최보가, 1995a, 1995b; 최규련, 1994; 김정옥, 1995) 가족응집성차원만이 기능적인 가족관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결과도 있어(전귀연·최보가, 1993) 가족응집성차원이 기능적인 가족관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며 그관계는 직선적 관계에 있다는 결론에는 견해의 일치를 보이나 가족적응성차원의 유용성에는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OCM에서 제안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곡선적이거나 양방향성이라는 가정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새로운 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OCM과 BSM에서 제안한 가족기능차원이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연구결과 및 논의 부분에서 OCM과 BSM의 가족기능차원의 상대적 영향력 비교 결과 부분 참조 바람).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은 BSM의 건강/역량차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비행은 OCM의 응집성 차원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두차원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관계차원으로서 OCM의 가족응집성차원을 사용하되 기능적인 가족관계와 선형적인 관계인 것으로, 변화차원으로는 이미 모델제시 때부터 직선적인 것으로 제안된 BSM의 가족 건강/역량차원을 이용하여 잠정적으로 <그림 1>과 같은 모델을 설정하여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내중·고등학교의 남녀학생들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대구시를 7개구로 나눈후 난

수표를 사용하여 3개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3개구에서 남·녀 중·고등학교 각1개교씩을 무선표집하였고, 선정된 각 학교의 2학년에서 한 한급씩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된 학급의 학생전체를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걸쳐 표집된 학생은 521명이었고,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자료처리의 대상으로 포함된 학생은 443명(남:231명 여:212명)이었다.

2. 측정도구

질문지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질문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관한 척도, 가족건강/역량 및 가족 양식에 관한 척도,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척도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평가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척도Ⅲ(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s Ⅲ: FACESⅢ)를 연구목적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FACESⅢ은 Circumplex Model의 두개의 주요한 차원(응집성과 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Ol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가족응집성을 평가하는 것은 10개의 문항으로,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지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공동시간과 친구관계 및 가족의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관심 등 다섯가지 구체적인 영역들에 의해 측정된다. 가족적응성을 평가하는 것 역시 10개의 문항으로, 가족의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및 규칙에 대한 다섯가지 구체적인 영역에 의해 측정된다.

본 연구자가 응집성요인 및 적응성요인과 전체척도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84, .74, .86이었다.

한편, FACESⅢ은 원래 Olson의 Circumplex Model에서 제시된 양방향성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였으나 FACESⅢ을 사용한 경험적 연구들이 Circumplex Model의 곡선적인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Beavers & Voeller, 1983; Green 등, 1985; Fristad, 1989; Perosa & Perosa, 1990). 즉 FACESⅢ의 Likert 5점 척도의 문항들은 역기능-기능-역기능의 곡선적인 측정치가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역기능-기능의 직선적인 측정치를 내기 쉽게 되어 있어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지나치게 높아 역기능적인, 밀착가족과 혼란가족을 FACESⅢ로는 구별해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FACESⅢ의 직선적 측정치로 인해, FACESⅢ를 사용해서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고자 할 때는 16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종전의 4 × 4분류방법보다는 새로이 제안된 3차원적(3-D) Circumplex Model에 의한 분류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제안하고, 균형가족은 FACESⅢ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이며 극단가족은 두 측정치가 모두 낮은 가족이라고 했다(Olson, 1991).

최근에 Olson 등(1992)이 새로이 제안한 FACESⅢ에 의한 집단분류방법과 명명방법에 의하면, 응집성 수준에 따라 과잉분리집단, 분리집단, 연결된 집단, 매우 연결된 집단으로 나누어지며, 적응성 수준에 따라서는 경직집단, 구조적인 집단, 융통적인 집단, 매우 융통적인 집단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에 따른 가족체계유형은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가족으로 나뉘어진다.

2) 가족건강/역량 및 가족양식 척도

가족건강/역량 및 가족양식에 대한 평가는 Beavers, Hampson 및 Hulgus(1990)가 개발한 가족에 대한 자기보고 척도(Self-report Family Inventory II: SFIⅡ)를 연구목적에 맞게 번안하였다. SFIⅡ는 BSM상의 가족체계 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2개요인 및 가족기능과 관련된 다른 3개요인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36항목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가족건강/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19개 문항, 가족양식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SFIⅡ에 대한 하위요인별 Cronbach α 는 .84~.88범위 내에 있으며 1개월에서 2개월에 걸친 검사 - 재검사 신뢰도는 가

족건강/역량과 가족양식에서 .87과 .70이었다고 보고되었다. SFIⅡ와 Marlowe - Crowne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간의 상관관계는 .03~.11범위로 대체로 낮다(Beavers et al., 1990).

3) 청소년의 적응성척도

(1) 불안척도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Spielberger 등(1970)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STAI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나누어 중복된 내용을 배제하고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문항을 선별하여 각각 15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상태불안척도와 특성불안척도에 각각 2개의 요인씩 추출되었으며 상태불안척도와 특성불안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각 .83, .76이었다.

(2) 우울척도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Faulstich 등(1986)이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CES-DC(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와 Kovacs(1985)의 CDS(Children's Depression Scale)를 참고로 하여 25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 요인별로 .82, .77, .81이었다.

(3) 자아존중감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척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물론 영역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척도의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제안한대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77~.89이었다.

(4) 비행척도

먼저 청소년 비행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선행연구(서경숙, 1984; 김정화, 1989; 노성호, 1987)를 참조하여 비행의 유형과 질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어떤 행동이 비행이냐의 판단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며, 보는 집단과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인 규정과 관행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본 연구에서 측정하려는 것은 범죄 측면에서 명백한 비행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기 학생으로서 대다수에 의해 기대되거나 인정되는 행동으로부터 이탈된 행동성향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가능한 비행의 폭을 넓게 하여 문항을 구성하여 추출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설명변량은 53.4%이었으며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 요인별로 .66 .86이었다.

이상과 같은 척도들은 모두 Likert 5점등 척도로 구성되었다.

3.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5년 5월29부터 6월5일까지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했으며 완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995년 7월3일에서 7월7일사이에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표집에 의해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본 연구자가 질문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 및 응답방법을 설명하였다. 검사는 오전에 실시하도록 배려하였으며 질문지에는 솔직하게 성심껏 답하도록 당부하였다. 몇분간 실시한 후 모든 학생이 다했을 때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473부였고 이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자료와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한 거짓 척도 문항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와 편부모 가족 및 시실아의 자료를 제외한 443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산출했으며 각 척도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인 분석과 직각회전을 이용했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OCM의 경우에는 Olson 등이 새로이 제안한 FACESⅢ에 의한 집단분류방법과 명명방법에 의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MANOVA절차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BSM의 경우에는 Beavers 등(1990)이 제안한 방법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MANOVA절차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OCM과 BSM의 가족기능차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OCM과 BSM의 가족기능차원의 상대적 영향력 비교

OCM과 BSM에서 제기한 가족기능차원이 청소년의 적응을 설명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및 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OCM과 BSM의 가족기능차원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BSM의 건강/역량과 가족양식 차원, OCM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차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불안에 영

향을 미치는 가족기능차원은 BSM의 건강/역량과 가족양식차원이었으며 건강/역량 차원은 전체변량 15.2% 중 14.2%를 설명하고 가족양식차원은 1%를 설명했다.

OCM과 BSM의 기능차원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BSM의 건강/역량과 가족양식차원, OCM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차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BSM의 건강/역량 차원이었으며 전체변량 9.5%를 설명했다.

OCM과 BSM의 기능차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CM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차원과 BSM의 건강/역량과 가족양식차원을 독립변인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하여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기능차원은 OCM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차원이었으며 가족응집성차원은 전체변량 17.4% 중 16.4%를, 가족적응성차원은 1.0%를 설명했다.

OCM과 BSM의 기능차원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CM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차원과 BSM의 건강/역량과 가족양식차원을 독립변인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종속변인으로하여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기능차원은 OCM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차원이었으며 가족응집성차원은 전체변량 5.2% 중 3.4%를, 가족적응성차원은 1.7%를 설명했다.

OCM과 BSM의 가족기능차원이 청소년의 적응을 설명하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불안과 우울에서는 BSM의 건강/역량 차원이, 자아존중감과 비

<표 1> 가족체계요인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Multiple R	.390			
R Square	.152			
Standard Error	15.211			
F = 39.608	Signif F = .000			
회귀방정식에서의 변수들				
변수명	Beta	T값	유의도	R2
BSM 건강/역량	.461	8.088	.000	.142
BSM 가족양식	-.131	-2.301	.021	.010
(상수)		16.742	.000	

<표 2> 가족체계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Multiple R	.308			
R Square	.095			
Standard Error	15.683			
F = 46.358	Signif F = .000			
회귀방정식에서의 변수들				
변수명	Beta	T값	유의도	R2
BSM 건강/역량	.308	6.809	.000	.095
(상수)		11.314	.000	

〈표 3〉 가족체계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Multiple R	.418			
R Square	.174			
Standard Error	15.915			
F = 46.619	Signif F = .000			
회귀방정식에서의 변수들				
변수명	Beta	T값	유의도	R2
OCM 응집성	.341	6.742	.000	.164
OCM 적응성	.121	2.402	.016	.010
(상수)		14.656	.000	

〈표 4〉 가족체계요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Multiple R	.228			
R Square	.052			
Standard Error	10.788			
F = 12.099	Signif F = .000			
회귀방정식에서의 변수들				
변수명	Beta	T값	유의도	R2
OCM 응집성	-.266	-4.905	.000	.034
OCM 적응성	.156	2.873	.004	.017
(상수)		21.693	.000	

행에서는 OCM의 응집성 차원이 우세하였다. 원래 두 모델 모두 건강과 병리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두 개의 중요한 가족기능의 차원을 확인했다. 첫 번째 관계 차원은 OCM에서 가족응집성으로 그리고 BSM에서는 가족양식으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 차원은 변화차원인데 그것은 OCM에서는 가족적응성으로, BSM에서는 가족 건강/역량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 설명력이 있는 것은 관계차원으로 OCM의 가족응집성이, 변화차원으로는 BSM의 건강/역량차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능차원으로 OCM과 BSM의 경우에서와 같이 관계차원과 변화차원을 설정하고, 관계차원에는 OCM 가족응집성을, 변화차원으로는 BSM의 건강/역량차원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제안한 모델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새로운 가족체계모델과 OCM 및 BSM과의 비교를 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새로운 가족체계모델과 OCM 및 BSM과의 비교

〈그림 1〉의 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OCM의 가족응집성과 BSM의 건강/역량차원을 사용하여 집단 분류를 해보고자 시도했다. 연구대상자들이 나타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집단을 분류하여 연구할 때마다 표집대상자에 따라 집단이 분류되어 결국은 연구자, 연구대상자에 따라 집단분류가 달리 될 가능성이 있는 OC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보다는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가 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가족원의 건강정도를 파악하는데 보다 더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분류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본 연구자는 BSM의 경우에서와 같은 분류법을 개발하고자 의도했다.

먼저 Beavers 등(1990)이 제안한 BSM의 건강/역량차원을 이용한 집단분류법을 참조하여 BSM의 건강/역량차원으로 집단을 분류하고 OCM의 가족응집

성은 OCM의 분류법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1차적으로 집단을 분류하고 이 분류 방법에 의해 분류된 집단을 대상으로 불안과 우울, 자아존중감 및 비행을 종속변인으로서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하고, 가족체계별로 단변인 변량분석 및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분류방법의 신뢰성을 조사했다. 그리하여 최적으로 집단별 청소년의 적응도에 차이가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 분류는 극단 가족, 중간범위 가족, 건강한 가족으로 했다. 건강한 가족은 BSM의 건강/역량차원을 이용한 분류법상 건강한 가족에 속하고 OCM의 가족응집성차원을 이용한 분류에서 매우 연결된 가족과 연결된 가족에 속하는 가족을 주대상으로 했으며, 중간범위 가족은 BSM의 건강/역량차원을 이용한 분류법에서 중간범위 가족에 속하고 OCM의 가족응집성 차원을 이용한 분류에서 분리된 가족에 속하는 주대상으로 분류했다. 극단가족은 BSM의 건강/역량차원을 이용한 분

류법에서 경계선상의 가족과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에 속하고 OCM의 가족응집성차원을 이용한 분류에서 과잉분리된 가족을 주대상으로 분류했다. 가족체계유형분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표 6>과 같다.

새로운 가족체계 모델에 의해 분류된 가족체계유형의 분류능력을 검증 해보기 위해 청소년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및 비행을 종속변인으로서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모델을 OCM 및 BSM과 비교하기 위해 OCM과 BSM의 가족체계유형별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새로운 가족체계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적용에 대해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가족체계유형별로 주효과($F=11.625,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불안, 우

<표 5> 새로운 가족체계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

가족체계유형	극단 가족	중간범위 가족	건강한 가족
빈도(%)	49(11.06)	257(58.01)	137(30.92)

<표 6> 가족체계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변화차원: 가족 건강/역량			관계차원: 가족응집성			가족체계유형	
집단수준	집단분류	집단수준	집단수준	집단분류	*집단수준	집단분류	
19	1	최적의 가족	50	1	매우 연결된 가족	2	건강한 가족
24		39	40		3		
25	2	적절한 가족	33	2	연결된 가족	4	
43		32	32		5		
44	3	중간수준의 가족	26	3	분리된 가족	6	중간범위 가족
62		26				7	
63	4	경계선상의 가족	25	4	과잉분리된 가족	8	극단 가족
81		10				9	
82	5	심하게 혼란스러운 가족	10	4	과잉분리된 가족	8	극단 가족
95		10	9				

* 가족체계유형 집단수준=(가족 건강/역량 집단수준 + 가족응집성 집단수준)

울, 자아존중감 및 비행에서 가족체계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과 우울에서 모든 집단 간에 .001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 중간범위 가족, 극단 가족 순으로 불안과 우울이 낮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서는 모든 집단 간에 .001 <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극단 가족, 중간범위 가족, 건강한 가족 순

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가족체계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분류가 청소년 자녀들간의 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예견하는데 유용함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비행에서는 극단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건강한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 건강한 가족과 극단가족 사이에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건강한 가족의 청소년들은 중간범위 가족과 극단가족의 청소년들에 비해 청소년 비행 정도가 낮았다.

OC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

<표 7> 새로운 가족체계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다변인 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rox.F	Hypoth.DF	Error DF	p
새로운 가족체계유형	.816	11.625	8.00	874.00	.000

<표 8> 새로운 가족체계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단변인 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Hypoth.SS	Error SS	Hypoth.MS	Error MS	F	p
불안	13005.532	107140.377	6502.766	243.500	26.705	.000
우울	9220.899	110651.583	4610.449	251.480	18.333	.000
자아존중감	19403.962	115659.202	9701.981	262.861	36.909	.000
비행	750.119	53279.044	375.059	121.088	3.097	.046

<표 9> 새로운 가족체계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종속변인	집단	(평균)	중간범위 가족	건강한 가족
불안	극단 가족	(106.449)	5.66***	6.44***
	중간범위 가족	(93.490)	-	3.44**
	건강한 가족	(87.540)	-	-
우울	극단 가족	(76.510)	3.90***	5.39***
	중간범위 가족	(67.230)	-	3.62***
	건강한 가족	(60.971)	-	-
자아존중감	극단 가족	(86.000)	2.63**	5.75***
	중간범위 가족	(94.961)	-	7.23**
	건강한 가족	(106.569)	-	-
비행	극단 가족	(52.642)	.90	2.42*
	중간범위 가족	(54.984)	-	2.15*
	건강한 가족	(52.612)	-	-

* p<.05 ** p<.01 *** p<.001

〈표 10〉 OC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다변인 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rox.F	Hypoth.DF	Error DF	p
OC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768	10.041	12.00	1153.84	.000

〈표 11〉 OC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단변인 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Hypoth.SS	Error SS	Hypoth.MS	Error MS	F	p
불안	13305.757	106840.152	4435.252	243.371	18.224	.000
우울	6620.247	113252.235	2206.749	257.977	8.554	.000
자아존중감	22074.126	112989.039	7358.042	257.378	28.588	.000
비행	809.444	53219.720	269.814	121.229	2.225	.085

〈표 12〉 OC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종속변인	집 단	(평균)	중간범위 가족	약간균형된 가족	균형가족
불안	극단가족	(109.033)	4.18***	5.87***	6.07***
	중간범위가족	(96.074)	-	2.93**	4.48***
	약간균형된가족	(91.231)	-	-	2.57**
	균형가족	(85.508)	-	-	-
우울	극단가족	(76.167)	2.43*	3.44***	4.08***
	중간범위가족	(68.287)	-	1.48	3.53***
	약간균형된가족	(65.792)	-	-	2.50*
	균형가족	(59.385)	-	-	-
자아존중감	극단가족	(90.133)	.09	1.83	4.34***
	중간범위가족	(90.551)	-	4.99***	8.80***
	약간균형된가족	(98.693)	-	-	6.25***
	균형가족	(111.953)	-	-	-

* p<.05 ** p<.01 *** p<.001

에 대해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별로 주효과(F=10.041,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 중 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서 가족체계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비행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가 없었다.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에서는 모든 집단 간에 p<.01 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극단 가족, 중간범위 가족, 약간 균형된 가족, 균형 가족 순으로 청소년들의 불안이 낮았다.

우울에서는 중간범위 가족과 약간 균형된 가족의 청소년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집단들 간에는 .001 <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균형 가족, 약간 균형된 가족과 중간범위 가족, 극단 가족 순으로 청소년들의 우울의 정도가 낮았다.

OC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중간범위 가족과

극단 가족의 청소년들간, 극단가족과 약간 균형된 가족의 청소년들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OCM의 분류는 중간범위 가족, 극단 가족, 약간 균형된 가족의 청소년 자녀들간의 자아존중감을 예견하는데 새로운 가족체계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보다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 대해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서 가족체계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과 우울에서 모든 집단 간에 .001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 중간범위 가족, 경계선상의 가족 순으로 불안과 우울이 낮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서는 모든 집단 간에 p

<표 13>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다변인 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rox.F	Hypoth.DF	Error DF	p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857	8.702	8.00	870.00	.000

<표 14>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단변인 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Hypoth.SS	Error SS	Hypoth.MS	Error MS	F	p
불안	9920.021	106172.609	4960.010	242.403	20.461	.000
우울	7474.760	110627.993	3737.380	252.575	14.797	.000
자아존중감	16253.322	115684.678	8126.661	264.120	30.768	.000
비행	492.996	52686.921	246.498	120.289	2.049	.130

<표 15>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종속변인	집단	(평균)	중간범위 가족	건강한 가족
불안	경계선상의 가족	(105.106)	5.13***	5.82***
	중간범위 가족	(93.015)	-	2.79**
	건강한 가족	(88.147)	-	-
우울	경계선상의 가족	(75.681)	3.56***	5.00***
	중간범위 가족	(66.891)	-	3.34***
	건강한 가족	(61.279)	-	-
자아존중감	경계선상의 가족	(83.829)	3.86***	6.28***
	중간범위 가족	(96.143)	-	5.20**
	건강한 가족	(104.860)	-	-

** p < .01 *** p < .001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별로 주효과(F=8.70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 중 불안,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계선상의 가족, 중간범위 가족, 건강한 가족 순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BSM의 분류가 가족체계유형별 청소년 자녀들간의 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예견하는데 유용

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불안과 우울의 경우에는 OC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 분류법과 BSM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분류법이 모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가족체계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분류 역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예견하는데는 BSM에 의한 가족체계분류와 새로운 가족체계모델에 의한 가족체계분류가 모두 유용함을 보여주며 OCM에 의한 가족체계분류는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적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비행을 예견하는데는 OCM과 BSM에 의한 가족체계분류는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CM과 BSM보다는 새로운 가족체계모델에 의한 가족체계분류가 청소년의 비행을 예견하는데는 보다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기능차원에 따라 직선성과 곡선성을 달리 주장하는 BSM이나 가족기능차원 모두를 곡선적으로 주장하는 OCM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여 가족의 기능성을 진단하는 것 보다 BSM의 건강/역량 차원과 OCM의 응집성 차원을 모두 가족기능과 직선적인 것으로 가정하여 가족체계를 분류하는 새로운 가족체계모델이 보다 더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자들은 BSM이나 OCM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두 모델 모두를 사용하기 보다는 BSM과 OCM에 기초하여 개발된 새로운 가족체계모델을 사용하여 가족의 기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OCM과 BSM에 의한 가족기능차원의 유용성을 검증해보고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보다 더 잘 예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체계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은 대구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443명이

있고 사용된 도구는 가족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FACES III과 SFI-II와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불안척도,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척도 및 비행척도였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변량 변량분석, Scheffé의 사후검증 및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OCM의 가족기능차원과 BSM의 가족기능차원이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차이가 있었다. 불안과 우울에서는 BSM의 가족 건강/역량차원이, 자아존중감과 비행에서는 OCM의 응집성 차원이 우세한 영향력을 미쳤다.

둘째, OCM의 관계차원인 가족응집성과 BSM의 변화차원인 가족 건강/역량을 이용한 새로운 가족체계모델에 의한 가족체계분류 방법은 청소년의 적응을 판단하는데 OCM과 BSM보다 유용하였다.

그러나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로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지적하고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대구시내 청소년에 제한된 점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추후 요망된다.

둘째, 청소년 자녀의 지각에만 초점을 두었으므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기술하는 가족체계 유형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가족구성원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부모와 자녀의 일치도, 지각의 차이점, 세대간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해서만 가족체계 유형을 평가했다. 그러나 관찰 척도를 통한 가족체계 유형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는 정상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혼가족, 편부모가족, 입양가족, 문제가족 및 입양가족등 가족유형이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가족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가족

체계 유형과 가족원들의 적응과의 관련성 및 정상가족과의 비교분석에 대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와 기준이 모두 외국에서 개발되어 적용된 것이다. 가족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수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행하여 우리문화에 맞는 척도 개발 및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가진 가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적응에 필요한 가장 바람직한 가족체계 유형이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도 건전하고 기능적인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김경화(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의 의사소통과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11(2), 30-39.
- 3) 김정옥(1995). 가족스트레스, 가족체제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3), 101-112.
- 4) 노성호(1986). 사회계층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비행척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서경숙(1984). 부의 훈육방식 및 가정결속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성심여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6) 전귀연·최보가(1995a).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83-98.
- 7) 전귀연·최보가(1995b).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2), 73-88.
- 8)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2(2), 140-152.
- 9)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10) Anthony, J. E.(1970). The impact of mental and physical illness on family lif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7, 138-146.
- 11) Barnes, H. & Olson, D.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12) Beavers, W. R.(1977). Psychotherapy and Growth: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New York: Brunner/Mazel.
- 13) Beavers, W.R.(1981). A systems model of family for family therapis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299-307
- 14) Beavers, W. R., Blumberg, S., Timken, K. R., & Weiner, M. D.(1965). Communication patterns of mothers of schizophrenics. Family Process, 4, 95-104.
- 15) Beavers, J., Hampson, R. B., Hulgus, Y. F., & Beavers, W. R.(1986). Coping in families with a retarded child. Family Process, 24, 398-405.
- 16) Beavers, W. R., & Voeller, M. N.(1983).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17) Bell, R.(1982). Parent-adolescent interaction in runaway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 18) Bertalanffy, L. von.(1968). General Systems Theory: Foundation, Development, Applications. New York: Brazillier.
- 19) Eri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20) Elder, G.H., Jr.(1980). Family Structure and Socialization, New York: Arno Press.
- 21) Faulstich, M., Carey, M., Ruggiero, L., Enyart, P., & Gresham, F.(1986). Assessment of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 evalu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

- sion Scale for Children (CES-DC).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1024-1027.
- 22) Fristad, M. A.(1989). A comparison of the McMaster and Circumplex family assessment instrumen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5, 259-269.
 - 23) Garbarino, J., Sebes, J., & Schellenbach, L.(1984). Families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5, 174-183.
 - 24) Green, R. G., Kolevzon, M.F., & Vosler, N. R. (1985). The Beavers-Timberlawn model of family competence and the Circumplex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eparate, but equal? *Family Process*, 24, 385-398.
 - 25) Hampson, R.B., Beavers, W.R., & Hulgus, Y.F. (1988). Commentary: Comparing the Beavers and Circumplex Model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7, 85-92.
 - 26) Joanning, H.(1985). A review of the Circumplex Model, FACES II and a clinical alternativ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3, 76-78.
 - 27) Kelsey-Smith, M., & Beavers, W. R.(1981). Family assessment: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amily system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 3-12.
 - 28) Kovacs, M.(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95-998.
 - 29) Lavee, Y. & Olson, D.H.(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 30) Lee, C.(1988). Theories of family adaptability: Toward a synthesis of Olson's Circumplex and the Beavers Systems Models. *Family Process*, 27, 73-85.
 - 31) Lewis, J.M., Beavers, W.R., Gossett, J.T., & Phillips, V.A.(1976). *No Single Thread: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s*. New York: Brunner/Mazel.
 - 32) Miller, I.W., Epstein, N.B., Bishop, D.S., & Keitner, G.I.(1985).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345-356.
 - 33) Olson, D.H.(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In Walsh, Froma(Ed.), *Normal Family Processes*(PP.104-136). NY/London: The Guilford Press.
 - 34) Olson, D.H.(1985). Commentary: Struggling with congruence across theoretical models and method. *Family Process*, 24, 203-207.
 - 35) Olson, D.H.(1991). Commentary: Three-Dimensional(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 74-79.
 - 36)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1992). *Family Inventories*.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MN.
 - 37) Olson, D.H., Portner, J., & Lavee, Y.(1985). *FACES III*.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38) Olson, D.H., Russell, C.S., & Sprenkle, D.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18, 3-28.
 - 39) Olson, D.H., Sprenkle, D., & Russell, C.(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8, 3-28.
 - 40) Perosa, L.M. & Perosa, S.L.(1990). The use of bipolar item format for FACES III: A reconsider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6, 187-199.
 - 41) Portner, J.(1981).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teraction types and Circumplex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42) Rodick, J. D., Henggeler, S. W., & Hanson, C.

- L.(1986) An evaluation of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
- 43) Russell, C.S.(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II. Empirical evaluation with families. *Family Process*, 18, 29-45.
- 44) Smith, D.E.(1985). The relationship of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to family satisfaction: A study of family stress pile up. Ph.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7(3).
- 45) Spielberger, C.D., Gorsuch, R.L., & Lushene, R.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46) Sprenkle, D. H., & Olson, D. H.(1978)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V. Empirical study of clinic and non-clinic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 59-74.
- 47) Stierlin, H.(1974). *Separating Parents and Adolescents*. New York: Quadrangle.